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12.3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2025 하반기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주요 이슈

- (호라이즌유럽) 집행위, 2026~2027년 호라이즌 유럽 [워크프로그램 채택](#) (140억 유로). 청정산업, AI, 신유럽바우하우스 등 ‘수평적 공고 (horizontal calls)’ 도입되고, 참여자 확대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모 구조 전반을 [간소화하고 참여 용이성 제고 추진](#)(‘연구혁신 패스트트랙’ 공모 도입, 과제 수 약 35% 감축하고 과제당 규모 확대, 2단계 평가 및 블라인드 평가 확대, 신청서 분량 축소, 2026~2027년 예산의 약 50%를 립선편딩으로 운영 등)
-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확대. 이집트·스위스 프로그램 전체 가입, 일본은 필라2 준회원국 가입 협상 완료(2026년 서명), 호주는 탐색적 논의 개시
- (FP10·ECF·MFF)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10), 차기 다년재정프레임 워크(MFF), 유럽경쟁력기금(ECF) 논의 본격화. [차기 MFF](#) 약 2조 유로 규모 제안, ECF는 4,090억 유로, FP10은 1,750억 유로 규모로 연구-시연-배포 전주기 지원 구상. FP10과 ECF 연계 강화 가능성 속에 과학의 독립성 및 재정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 지속
- (인재유치) 인재 확보 측면에서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를 통해 장기 펠로우십 및 박사후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
- (ERA·AI) [ERA 법안](#) 구체화 추진(R&D 투자 확대, 연구자 근무환경 개선, 지식·인재 순환 촉진 목표), EU 연구혁신 생태계 전반에서 AI 활용 확대 (‘Apply AI’ 및 ‘AI in Science’ [전략](#) 발표, RAISE 시범사업 출범, AI 활용 확대로 제안서 제출 급증 및 일부 과제 [선정률 하락](#) 현상 발생 등)

○ 2025 하반기 한-EU 협력 주요 진전

-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서명 이후 ‘이행 단계’에 진입 하였으며, 공동연구 확대 기반 확보
-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[제3차 디지털 파트너십 회의](#)를 통해 반도체·6G·AI·양자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및 디지털 기술 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 의지를 재확인